

'나홀로족' 급증에 간편식 뜬다

1인가구 늘면서 유통업체 간편식 인기 롯데마트 상무점 즉석밥 53.8% 신장

1인 가구 증가로 광주지역 유통업체에서도 가정간편식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 이 늘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광주동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전체 가구 수 중 19%, 2018년엔 30%에 달하는 등 해마다 1인가구수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는 전년 대비 가정간편식(HMR) 6.8%는 신장했다.

종류별 세부 신장량을 살펴보면 즉석

밥 5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면류 24.5% 데워서 바로 끓여먹을 수 있는 국·탕의 경우 16%, 냉동볶음밥, 냉동안주 등과 같은 레토르트 식품은 18.16%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선호도가 늘다보니 유통업체도 맞춤형 간편식을 내세우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표 간편식 메뉴 중에 하나가 술안주다.

늘어나는 혼술족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물가도 상승으로 가성비를 따지다보니 냉동안주 간편식 시장은 무려 6배나 커졌다.

간편식품의 종류도 다양화 됐다. 더

군다나 단순한 조리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1인 가구에서 인기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 선편의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자체 간편가정식 브랜드인 '피코크'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오는 9-10월경 피코크의 입지 강화를 위해 피코크 전문점을 오픈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6년부터 '요리하다'라는 간편식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전 차이나타운 맛집인 '만다박'의 백년짜장과 하얀백년 짜장 등 여러 유명 맛집과 전문가의 이름을 내세워 가성비비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제일제당은 지난해 IFC몰에 '가정간

편식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자체 브랜드인 햇반컵반, 고메, 비비고 등을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아쿠르도 '잇츠온'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아침식사대용으로 '전복죽', '아재죽'을 내세워 판매하고 있다. 기존의 배달시스템의 인프라를 내세워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고도 편리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요즘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아 데다 1인

식품업체 관계자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씹음을 즐기면서 맛도 챙기자는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족'이 늘어난데다 1인가구의 증가 또한 관련 시장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앞으로 간편식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나라 기자



익산국토청은 최근 정읍시 신태인읍 정읍천 오금지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익산국토청 '수해대비 모의훈련'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정읍천 오금지구 현장에서 최근 '2018년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익산국토청과 4개 국토사무소(광주, 남원, 전주, 순천),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라북도, 정읍시, 한국농어촌공사, 하천공사 현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정읍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고, 붕괴 위험에 놓인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상황발생 및 보

고, 유관기관 상향전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자재·장비·동원·응급조치 등 수해대응 향상에 중점을 뒀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모의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훈련을 통해 나타난 사소한 문제점까지도 보완해 완벽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서미애 기자

신세계, 온·오프라인 '파격 할인행사'

패션·화장품 등 165개 브랜드 참여

신세계백화점, 6월 비수기 '파격 할인행사'로 넘는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신세계몰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오피스라인 할인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 남성, 아동, 스포츠, 화장품, 식품, 생활 등 전 장르에 걸쳐 168개 브랜드, 500여 개 품목이 참여한다.

이들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전 점과 신

세계몰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동일하게 판매한다.

이렇게 선보이는 가격은 기존 백화점 정상가와 비교할 경우 최대 85% 저렴한 가격이다.

대표 상품은 코데즈컴바인 민소매 원피스 1만5,000원, 리바이스 슬림핏 남성 청바지 6만7,000원, 마인드브릿지 5부 반바지 2만1,000원, 캡 키즈남·여아 반소매 티셔츠 1만8,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닥터마틴 캐주얼 운동화 9만 3,000원, 블랙야크 여름 남자 트래킹화 5만원, 소니 디지털카메라(ILCE5100L) 55만6,000원, 세사 흡이불 베게세트 3만 3,000원 등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신세계백화점 전 점에서는 참여 브랜드와 상품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록색 배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신세계몰에서는 '오피스라인 쇼핑위크'라는 행사 페이지가 마련된다.

신세계백화점이 파격 행사 마련한 것은 백화점 업계의 연중 최대 매출 비수기인 6월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6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여름의 류 수요가 많아지지만, 소비자들이 6월

말부터 시작하는 여름 세일까지 쇼핑을 미루기 때문에 6월에는 매출이 항상 낮아진다.

반면 온라인인 신세계몰의 6월 매출은 매년 크게 신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순민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6월 매출에 따라 상반기 매출목표 달성의 운곽이 나타난다"며 "이번 행사는 온라인의 최대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오프라인 매장에 옮겨놓은 최초의 행사인 만큼 좋은 쇼핑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이른더위에 모기약 구매 급증

이마트, 전년비 모기약 22.6%·모기장 8.3% ↑

이른 더위에 모기출현률도 빨라지면서 해충퇴치용품을 찾는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4일 광주 이마트에 따르면 한여름 더위가 시작된 지난1일부터 13일까지 모기약은 22.6%, 모기장은 8.3%로 전년비 신장했다. 이에 이마트는 '모기약 모음전'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모기약은 비화학적제품과 간편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에어트랩'은 모기의 습성을 파악해 UV LED 광원을 이용해 모기를 유인한

후 바람을 이용한 흡입팬으로 모기를 포획한다.

사물인터넷(IoT)으로 모기퇴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과 연동해 집 밖에서도 간편하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시기까지 알 수 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담당은 "올해 날씨는 폭염으로 정의될 만큼 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모기도 일찍출현 해 소비자들도 해마다 빠르게 모기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건강' 한 잔 때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혼합해 그대로 착즙한 '더싱그러운 100% 착즙주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중기청, 19개 조합 지원

회원사 공동 마케팅·장비구매 등 최대 2억원

중소벤처기업부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19개 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공정개선, 레시피 및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행복을 나누는 커피협

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신청, 평가 및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19개 조합이 선정됐다.

광주·전남지방청 김진형 청장은 "전통시장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외에 특별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이 없다"면서 "협동조합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제주항공, 무안발 국제선 특가

오는 21일까지 일본·베트남·태국 등 할인판매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무안국제공항 기점의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등 국제선 4개 노선에 대한 특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6월15일부터 10월27일까지 탑승 가능한 편도 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

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무안-일본 오사카 노선은 최저 6만4,800원 ▲무안-베트남 다낭 노선 최저 16만1,300원 ▲무안-태국 방콕 노선은 최저 10만1,300원에 판매한다.

또 오는 7월27일 신규 취항하는 ▲무안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최저 8만4,800원부터 판매한다.이 같은 특가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앱과 웹에서할 수 있다.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제주항공은 또 무안-타이베이 신규취항에 맞춰 회원에게는 선착순(494명)으로 1만원권의 할인쿠폰을 준다. 이 기간 동안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4만원권의 할인쿠폰을 증정한다./이나라 기자

제 3 회

엑스페론 전국 남·여 아마추어 골프대회

전남지역장 오 유 철 010-3627-6701

- 전남지역예선 2018. 06. 12 (화) 13:00 (샷건) 화순 엘리체 C.C 12:00 (집결)
- 본 선 2018. 08. 29 (수) 부여 롯데 C.C
- 참 가 대 상 만 25세 이상 남, 여 (순수아마추어)
- 참 가 비 금 50,000원
- 참가신청 및 문의 엑스페론골프 아카데미 대회본부 032-741-8315 엑스페론골프 본사 02-2070-5009
- 참가비입금 예금주 오유철 기업은행 011-627-6701

* 참가비 입금시 참가선수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고 꼭 확인 해주십시오

총 상금 80,000,000원 상당

주최 / XPERON GOLF 엑스페론골프(주)

주관 / XPERON Golf Academy / TANK / 유유안 통 특카홀 / enhappy / SEC 주식회사 삼 일렉트론스